안정 되찾은 마운드…KIA 반격이 시작됐다

6월 삼성전 '1승2패' 제외 한화전 등 4차례 위닝시리즈
외인 원투 펀치·토종·불펜 '제 역할' …순위싸움 전면에

신한 SOL Bank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의 반격이 시작됐다. KIA의 믿을 구석은 '마운드'다.

투타의 줄부상으로 힘든 봄날을 보냈던 KIA는 6월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6월 유일한 루징시리즈다.

KIA는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KT 위즈를 상대로는 모두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특히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1위 싸움 중인 한화를 상대로도 2승을 챙겼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외인 원투 펀치'가 중심을 잡고 있는 마운드에서 김도현이 토종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마운드 무게감을 더해줬다.

풀타임 선발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도현은 올 시즌 14경기에 나와 3.02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승운이 따르지 않아 3승에 그쳤지만 7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80.1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KIA 토종 선발 1위다. '베테랑' 양현종이 14경기에서 71.2이닝을 던졌다.

마무리 정해영이 버티고 있는 불펜에서는 또 다른 핵심 전상현이 반전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상현은 18일 KT와의 경기에서 19개의 공으로 2이닝을 책임지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지난 5월 16경기에서 4.8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했던 전상현은 9월 9경기에서 11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면서 평균자책점을 2.45로 묶었다.

전상현은 "삼진이 많이 안 나와서 경기를 풀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삼진이 나와야 편안하게 쉽게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공격적으로 자신있게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페이스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마운드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필승조이자 투수들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투수조장이기도 한 전상현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순위 싸움의 전면에 서겠다는 생각이다.

전상현은 "불펜에 있으면 선수들이 많이 어려졌다는 게 보인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경험이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몸관리다. 한 해 바짝하고 그러기보다는 꾸준하게 몸관리하면서 1년, 2년, 3년 가는 게 중요하다. 자기 공을 믿고 자신 있게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의 활약 속에 새 얼굴의 등장도 반갑다.

지난해 부산고를 졸업하고 10라운드 지명 선수로 입단한 성영탁은 프로 두 번째 시즌 불펜의 키로 떠올랐다.

전상현이 18일 KT전에서 19구로 2이닝을 소화하는 등 불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시동이 걸렸다. 〈KIA 타이거즈 제공〉

17일까지 11경기에서 13.2이닝을 소화한 성영탁은 무실점 피칭을 펼치면서 고민 많던 불펜에 '샛별'이 됐다. 성영탁은 지금은 '두 번째' 투수로 투입되면서 뒷심 싸움에 새 동력이 되고 있다.

'고졸 루키' 이호민도 눈길 끄는 데뷔전을 치렀고, 김태형이라는 또 다른 루키도 있다.

부상자의 복귀도 준비되고 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이의리의 복귀가 임박했다.

이의리는 오는 21일 함평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마운드에 오른다.

앞서 KIA는 지난 14일 NC와의 퓨처스 경기에 이의리의 실전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실전 대신 라이브 일정으로 페이스를 조정했다.

이날 이의리는 2이닝 40개 정도를 던지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경기 만에 승점 광주FC "연승 간다"

22일 K리그1 20R 대전과 홈경기

무승 고리를 끊은 광주FC가 홈에서 연승을 노린다.

광주FC가 2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맞대결에 나선다. 연승을 노리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터진 정지훈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데뷔 3번째 시즌에 기록된 정지훈의 데뷔골이었다.

기다렸던 '신예'의 골로 승리를 거둔 광주는 4경기 연속 이어졌던 무승 고리를 끊어냈다. 광주는 앞선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면서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7승 6무 6패(승점 27)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6위로 복귀했다.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본다.

K리그1에서 전북현대의 독주(12승 5무 2패·승점 41)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홈에서 만나게 되는 대전(9승 6무 4패·승점 33)이 2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전과 승점 6점 차이지만 3위 김천까지 광주의 가시권에 있다.

김천상무가 8승 5무 6패의 성적으로 승점 29점을 기록, 광주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4위 울산HD와 5위 포항스틸러스도 각각 8승 5무 6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29을 쌓았다.

광주가 앞선 제주 원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왔다.

공수에서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공격 전면에서는 정지훈의 활약이 있었고 최후방에서는 골키퍼 노희동이 수적 열세의 팀을 구했다.

이날 이강현이 후반 22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지만 광주는 노희동을 중심으로 10개의 슈팅을 날린 제주의 공세를 막으면서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기세를 이어 2위 대전을 상대로 시험 무대를 갖는다.

신예들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살린 광주가 2위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도 놀란 데뷔골, 팀 승리에 역할하겠다"

'3년만의 첫 골' 광주FC 정지훈

3년을 기다림 끝에 첫 골을 장식한 광주FC의 정지훈이 순위 싸움 전면에 선다.

광주FC의 정지훈은 지난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1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중원에서 골키퍼 노희동이 띄운 공을 잡은 정지훈은 최경록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쪽 측면에서 질주를 시작했다.

공을 몰고 그대로 제주 페널티지역까지 진입한 정지훈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제주 골키퍼 김동준 옆으로 바운드 된 공은 이내 골망을 흔들었다.

'0'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이자 팀은 물론 정지훈 개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골이었다.

이 골은 2023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정지훈의 데뷔골이었다. 정지훈은 프로 세 번째 통산 28번째 경기에서 기록된 골로 팀의 승리를 부르고 이 경기의 MOM에 선정됐다.

감격스러운 데뷔골을 장식한 정지훈은 "골이 들어갔는 지도 몰랐다. 그냥 계속 보다가 골이 들어간 걸 알았다"며 "사실 잘 맞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골대로 들어갔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 "팀 승리에 역할을 해서 기분이 좋다. 많은 분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첫 골 소감을 밝혔다.

이정효 감독을 웃게 한 정지훈의 활약은 광주의 순위 싸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지훈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실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괴롭혔다. 환상적인 돌파 후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팀의 4경기 연속 무승 부진을 털어냈다.

페이스가 올라온 정지훈은 최근 이정효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공격포인트 수집도 시작했다.

본격적인 시즌 시작을 알린 정지훈은 "팀이 승리를 해야 하니까 계속 강하게 싸우겠다. 과감하게 하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정지훈이 지난 18일 제주SK FC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골을 넣으면서 1-0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FC 제공〉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 F조 울산HD와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 킥오프 직전, 인근에 낙뢰가 발생해 경기 시작이 미뤄지자 울산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월드컵 '낙뢰 변수'

울산 경기 65분 지연 등 악천후에 경기 중단 사례 잇따라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악천후로 경기 중단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낙뢰 변수'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 파추카(멕시코)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의 경기는 뇌우가 도시를 강타하면서 97분 동안 중단됐다.

잘츠부르크가 1-0으로 앞선 후반 9분 경기가 중단되면서 선수뿐 아니라 관중들도 모두 실내로 대피해야 했다.

폭우로 장내 가시거리가 극도로 좁아졌고, 번개가 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FIFA는 경기 중단 사실을 발표하며 "정해진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경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6시에 킥오프한 경기는 7시 13분에 중단됐다가 8시 50분에 다시 시작했고, 잘츠부르크가 2-1로 웃었다.

이 경기장은 K리그를 대표해 대회에 출전한 울산HD와 도르트문트(독일)의 조별리그 F조 3차전 장소다.

울산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전날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 킥오프 직전, 인근에 낙뢰가 발생해 시작이 65분 미뤄졌다.

미국에서는 '8마일(12.9㎞) 낙뢰 규정'이라 불리는 원칙에 따라 야외 스포츠 활동 시 8마일 내 낙뢰가 확인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었다.

이에 따르면 30분가량 낙뢰가 없다면 예정대로 스포츠 활동을 재개한다. 그 사이에 낙뢰가 확인되면 다시 3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울산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꾸린 베이스캠프에 머물던 지난 8일에도 폭우와 낙뢰로 잠시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1년 뒤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3개국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에서도 낙뢰에 따른 경기 중단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팀들도 종종 낙뢰로 경기 지연 문제를 겪는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울산 선수들은 낙뢰로 인한 킥오프 지연이 경기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골키퍼 조현우는 마멜로디전 직후 "(킥오프 지연이) 경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집중력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라커로) 들어갔다"며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라커룸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소통했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을 1-0으로 잡은 마멜로디의 미겔 카르도주 감독은 킥오프 지연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울산이 스리백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킥오프가 늦어져 전술을 점검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카르도주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보통(울산은) 풀백을 낮게 배치하고, 포백을 썼는데 오늘은 파이브백이었다"며 "전술과 경기 플랜을 조정할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